

광주교대부설초 무허가 건물 위험한 음악수업

별관 옥상에 300㎡ 가건물
합주실·방과후 교실로 사용
샌드위치 패널 구조 화재 취약
감사 지적에도 안전 불감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가 화재 등 안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불법 무허가 건물에서 수년째 학생들의 음악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대부초는 지난해 초 교육부가 진행한 광주교대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 받았지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업을 강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학교 측의 언어한 안전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1일 교대부초에 따르면 10여년 전부터 별관 2층 옥상에 300.8㎡(약 91평) 규모의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만들어 학생들의 합주실로 사용하고 있다. 무허가 합주실은 교대부초 오케스트라 단원 60여명과 악기 개인 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받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 28일 오후 교대부초 합주실을 둘러 본 결과 10여명의 학생들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무허가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샌드위치 패널은 시공비가 저렴하지만 화재가 나면 불이 쉽게 번지고 유독가스가 발생, 대형 인명 피해로 연결돼 교육부 등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가 10년 넘게 불법 가건물에서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수업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불법 가건물 내부.

무허가 건물 내부는 화재에 더 취약해 보였다. 16개의 비좁은 개인 지도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옆 방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즉각 대처하기 어려워 보였고, 출구 반대편 창문 너머에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비상계단은 턱이 높아 학생들이 쉽게 이용하기 힘들어 보였다.

학교 측은 이 무허가 건물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른 채 그동안 관례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10년 이상 됐고 학부모들이 기부

한 금액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진행한 광주교대 종합감사에서 이 무허가 합주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없이 사용돼 왔으며 광주교대 총장 등 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측은 오케스트라 수업을 진행할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 지적 이후에도 불안한 수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감사만 진행하고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않는 등 사실상 방관했기 때문이다.

교대부초 최영순 교장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소방시설을 갖춰놨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무허가 가설건축물로 만들어진 합주실을 31일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며 “교육부, 광주교대 측과 협의 후 예산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

신안 해양 쓰레기 처리장 주먹구구 추진

주민 의견수렴·사전평가·계약 심의 등 규정 위반 수두룩

국비 등 265억원이 투입되는 신안 해양 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평가, 계약 등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5급 공무원 1명을 경징계하고 다른 10명을 훈계조치하도록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폐가물 시설 조성은 군 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해 추진하고 입안 때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신안군은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 2014년 8월 실시설계, 지난 2월 편입 부지 매입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안군은 지난 3월 24일에야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공고했다.

신안군은 89억여원대 소각료를 구매하면서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되지 않고 환경평가와 관련한 환경부와 협의가 이

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구매를 요청했다.

지방계약법에서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

도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데도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수의 중소기업 참여가 배제된 채 2~3개 업체만 응찰하면서 투찰률이 낙찰하한율(87.995%)보다 4% 포인트 높아졌지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했다면 낙찰하한율에 근접해 5억3000만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도는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말 신안군민 467명의 청구로 이뤄졌다. 도는 부지매입, 상수원과 인접한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는 지적사항을 찾지 못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학 비율 높은 광주, 위탁 채용은 1곳뿐

부정적 인식에 기간제 인력풀 풍부...전남은 5곳 위탁

내년 전국적으로 300명 가까운 사립 중등 교사가 교육청 위탁 방식으로 선발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의 위탁 채용 인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위탁채용은 인사권 침해’라는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교육계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 31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2017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위탁 실시 계획에 따르면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14개 시·도에서 사립 교원 261명을 위탁 선발기로 했다.

광주의 경우 사립학교 법인들을 대상으로 ‘신규교원 위탁 채용’ 신청을 받은 결과, 금정학원(세광학교) 한 곳만 1명의 교사 채용 위탁 신청서를 냈다.

전남에서는 58개 법인(88개 학교) 중 ▲호남기독교학원(순천 매산고 5명) ▲월강학원(장평고 3명) ▲옥주학원(진도고 1명) ▲청암학원(순천 청암고 2명) ▲여도학원(여수 여도중 3명) 등 5개 법인의 위탁을

받아 14명을 선발기로 했다.

전남과 달리 광주의 위탁 채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는 기간제 교사 인력풀이 풍부한데다, 사학법인측의 부정적 인식 등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사학법인측은 “사학의 건학 이념을 존중하고 학교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9개 법인 22개교에서 17개 과목에 걸쳐 52명을 선발기로 해 가장 많았다. 충남의 사립학교 비율은 26%로 광주(43%)보다 적다. 부산도 10개 법인 산하 15개교에서 40명(14개 과목)을 교육청 위탁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이외 ▲강원 31명(7개 법인 12개교) ▲서울 29명(9개 법인 12개교) ▲대구 27명(9개 법인, 29개교) ▲경북 21명(10개 법인 11개교) ▲대전 19명(3개 법인 5개교) ▲경남 16명(9개 법인 12개교) 등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4
해질 17:38

달돋이 07:54
달질 18:50

건강관리 유의

을 가을들이 가장 기온이 낮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4/10	보성	3/9
목포	6/10	순천	4/11
여수	5/11	영광	4/9
나주	3/10	진도	7/11
완도	7/10	전주	3/9
구례	3/10	군산	3/8
강진	5/11	남원	2/9
해남	6/11	축산도	8/9
장성	3/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4.0	북서~북 1.5~4.0
남부	면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서부	면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03	02:48
	20:30	15:00
여수	간조	만조
	03:21	09:53
	15:55	21:53

◇주간 날씨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2/13	4/17	5/17	7/19	8/20	8/19	7/13

◇생활지수

	주의
	보통
	보통

광주 초·중·고 학부모회 법제화

시의회,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던 광주 일선 초·중·고교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유정선(남구2) 의원은 지난 31일 광주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선 학교 학부모회를 교육공 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조례 등에 따라 운영 근거가 명확하지만 학부모회는 실질적인 학사 보조 업무를 다양하게 맡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시의회는 이같은 학부모회의 운영근

거를 명확히 해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교육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회장과 부회장, 감사와 두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회 산하에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학부모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도 교육자치조례안을 통해 학부모회 운영 여건을 반영했지만 관련 조례가 소용에 휘말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교육청 사무관 승진 90%가 여성

광주시교육청의 사무관 승진 심사 결과, 여성 공무원이 90%를 차지해 화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1일 지방공무원 사무관 승진 심사 결과, 이은주·김진영 정책기획관실 주무관 등 교육행정직 10명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10명 가운데 여성은 9명으로 90%를 차지했으며 남

성은 교육시설과 안행관 주무관이 대상자에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만 해도 남성 5명, 여성 5명 등 5대 5의 균형을 이뤘고, 2014년에는 남성 10명, 여성 2명으로 남성 공무원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반)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축자금대출!!

할인어음!!

더블저축은행

본점 (062)223-5506

구도청1

충장파출소

광주세무서

국민은행

NC WAVE

더블저축은행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